

18세기 후반 서명응(徐命膺) · 서유구(徐有渠)의 『위사(緯史)』 편찬과 자료 활용*

편소리†

1. 서론

18세기 달성 서씨가는 국왕의 후의에 힘입어 가문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들은 공고한 정치적 기반을 토대로 국정 운영 전반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였다.¹ 특히 서명응(徐命膺, 1718~1787)과 그 일가는 영·정조대 주요 국책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연행 참여와 서적 출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²

서명응은 두 차례에 걸친 연행을 통해 서양인과 만나고 서학에 대한 견문을 넓혔으며,³ 그의 아들 서호수(徐浩修, 1736~1799) 또한 두 차례 연행에 참여하였다.⁴ 이들의 연행 경험과 북경 등지에서 수집한 서적은 가문 내부에

DOI: <http://dx.doi.org/10.36092/KJHS.2025.47.3.403>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임(GS-5-JX-NON-NRFBK21).

† 경희대학교 사학과, sorio216@hanmail.net

¹ 최성환, “정조대 전반 대의리와 『명의록』 의리에 기반한 탕평”,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의리』 (2020, 신구문화사).

² 서명응과 그 일가의 연행 참여와 서적 출간에 대해서는 甘峻熙, “朝鮮 後期 大丘 徐氏家 燕行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21); 김문식, 『서명응과 서유구의 학문 활동』 (신구문화사, 2024); 韓莢燮, “徐命膺 一家의 博學와 叢書·類書 編纂에 관한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참조.

³ 서명응은 영조 31년(1755)와 영조 45년(1769) 두 차례에 걸쳐 연행에 참여했다. 그가 연행에서 만난 서양인과 수집한 서학서에 관해서는 『承政院日記』 冊1198, 英祖31年 8月 26日 丁卯; 『同文彙考補編』 卷5, 使臣別單 第5, (己丑)冬至行正使徐命膺副使洪梓別單, 412~414를 참고.

서 적극적으로 공유되었으며,⁵ 서명응 - 서호수 · 서형수(徐滢修, 1749~1824) - 서유본(徐有本, 1762~1822) · 서유구(徐有渠, 1764~1845)는 다종다양한 서적을 함께 읽으며 토론과 저술 활동을 전개했다.⁶

이들은 연행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국책 사업 과정에서 청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서적을 신속히 입수하고 열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축적된 서명응 가문의 학문적 토양은 공동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서명응과 서호수 부자가 각각 편집당상(編輯堂上)과 낭청(郎廳)으로 참여한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상위고(象緯考)」의 편찬이 대표적 사례이다.⁷

이들에게 「상위고」 편찬이 한시적 국책 사업이었다면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는 가문 내 학술 담론의 상전(相傳)이 본격화되는 서막을 연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보만재총서』는 선천역(先天易)을 줄기로 경학, 천문학, 지리학, 농학, 음악, 연단술 등의 폭넓은 주제를 사부(四部) 체제로 엮은 대작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천의 사상(四象)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경익(經翼), 사별(史別), 자여(子餘), 집류(集類)로 분류한 후 하도(河圖) 중궁(中宮)에 맞추어 경익 5종[『선천사연(先天四演)』, 『상서일지(尚書逸旨)』, 『시악묘계(詩樂妙契)』, 『대학직지(大學直指)』, 『중용경위(中庸經緯)』], 사별 3종[『주사(疇史)』, 『위사(緯史)』, 『본사(本史)』], 자여 4종[『비례준(脾禮準)』, 『선구

4 서호수는 정조 즉위년(1776)과 정조 14년(1790) 두 차례에 연행을 다녀왔다. 첫 번째 연행에서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구득해 왔으며, 두 번째 연행에서 흡천감(欽天監) 소속 선교사들을 만나고 마테오 리치의 모를 방문했다. 『承政院日記』 冊1389, 正祖卽位年 9月 24日 壬辰; 『承政院日記』 冊1389, 正祖卽位年 9月 27日 丁未; 『正祖實錄』 卷3, 正祖14年 2月 24日 庚申; 『承政院日記』 冊1677, 正祖14年 4月 26日 丙子; 徐浩修, 『燕行紀』 卷3, 起圓明園至燕京, 庚戌年 8月 28 丙子, 29日 丁丑; 徐浩修, 『熱河紀遊』 卷3, 起圓明園至燕京, 庚戌年 8月 28日 丙子.

5 연행을 통한 서적의 입수는 서명응의 조부인 서문유(徐文裕, 1651~1707) 대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숙종 29년(1703) 서문유가 사은부사로 연행에 참가한(『承政院日記』 冊414, 肅宗29年 9月 21日 甲子) 이후, 그의 아들 서종옥(徐宗玉, 1688~1745)은 영조 15년(1739년) 진위감사은부사로 연행에 참여했다(『承政院日記』 冊885, 英祖15年 2月 2日 己卯). 이로부터 서명응 - 서호수 · 서형수까지 4대에 걸쳐 연행에 다녀왔다. 연행 참여를 달성 서씨가 전체로 확대하면 그 인원은 더욱 많아진다. 이에 대해서는 甘峻熙, 앞 논문에 자세히 다룬다.

6 韓茂燮, 앞 논문, 18~33.

7 문중양, “상수학적 새로운 우주론의 사색들”, 『조선후기 과학사상사』, (들녘, 2016), 243.

제(先句齋)』, 『원음약(元音鑰)』, 『참동고(參同攷)』], 집류 1종[『고사십이집(攷事十二集)』]으로 구성하였다.⁸

총 60권 31책에 달하는 방대한 총서는 서명응과 그 자손들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었다.⁹ 총서의 서론 격인 「보만재총서인(保晩齋叢書引)」을 통해서 서명응이 총서 전체를 기획하고 자손들이 실무 작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경익에 수록된 『선천사연』의 첫머리에도 달성 서명응이 공부한 것을 아들 서호수·서형수가 함께 교정하고, 손자 서유본·서유구가 교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¹¹

이처럼 『보만재총서』는 분량도 많고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 철학, 서지학, 과학사, 음악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² 각각의 분야에 대한 축차적이고 개별적인 연구는 서명응의 지적 체계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제는 그간의 분야별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서명응의 사유체계와 『보만재총서』의 총체를 파악할 수 있는

8 김문식, 앞 책 (각주 2), 80~84; 任佑旻, “徐命膺의 《保晩齋叢書》에 대하여”, 『書誌學報』 9 (1993).

9 『보만재총서』의 완성 시점은 『보만재연보(保晩齋年譜)』에 근거하여 서명응이 68세가 되던 정조 7년(1783)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총서의 대략적인 형태가 갖추어진 것이 정조 8년(1784) 경이고, 이 시점에도 각 저술에 대한 편집과 보충 작업이 지속되고 있었다. 아울러 각 저술이 서명응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실제 작성 시점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구만옥, “『脾禮準』의 저술 목적과 별자리의 구성”, 『韓國實學研究』 49 (2025), 370~374].

10 『保晩齋叢書』 冊1, 保晩齋叢書引, 3b: 年及耄耋, 使諸子若孫, 合編校對, 爲保晩齋叢書.

11 『先天四演』 卷上[『保晩齋叢書』 冊1], 17a: 達城徐命膺學, 男浩修澄修全校, 孫有本有渠全閱.

12 서명응과 『보만재총서』 수록 저술을 대상으로 한 각 분야의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학위 논문으로만 그 범위를 한정해 보면 아래와 같은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 金允景, “徐命膺의 老子思想에 關한 연구: 『道德指歸』에 나타난 道와 德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李大承, “보만재 서명응의 『참동고』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2009); 李奉鎬, “徐命膺의 先天學 體系와 西學 解釋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李昌奎, “徐命膺의 天人流通 思想에 관한 연구: 『先天四演』과 『尙書逸志』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3); 조희영, 2012, “서명응의 『先天四演』에 관한 研究”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李林起, “《保晩齋叢書》 編成體裁考察: 徐命膺의 四分法 始源論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박권수, “徐命膺(1716-1787)의 易學의 天文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朱容成, “서명응(徐命膺)의 악론(樂論) 연구: 선천학적(先天學的) 악론에 의한 제례악(祭禮樂)의 재구성”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 작업으로 이 글은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세계 지리지 『위사』를 검토할 것이다. 『위사』는 총서 내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¹³ 경학과 자연학의 관계를 선명히 드러내는 저작이다. 서명응은 선천(先天)을 주재강기(主宰綱紀)로 삼아 총서를 편찬하고자 했고,¹⁴ 지리지 역시 선천역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역대 지리지가 선천의 도를 밝히지 못한 채 연혁(沿革)과 경계[界至]만을 기록해 핵심을 놓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¹⁵

그는 『위사』의 편찬으로 진한(秦漢) 이후 도교의 술수와 서양으로 갈라져 전해진 복희(伏羲)의 선천역과 주비수법(周髀數法)을 통합했다고 자부했다.¹⁶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위사』는 『선천사연』을 중심으로 한 선천역과 『비례준』, 『선구제』로 대표되는 천문역산학(天文曆算學) 관련 서적을 매개하는 핵심 저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사』는 정조대 북고극도의 측정과 관련해 일찍부터 거론되었다.¹⁷ 『위사』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위사』의 권수(卷首)를 분석하여 서명응의 세계 지리 인식을 검토했다. 그에 따르면 서명응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지리관을 전복하기보다는, 청과 서양의 문물을 모두 중화의 유제로 파악했고, 그 기반 위에서 선천역과 주비수법을 결합해 『위사』를 구성했다고 한다.¹⁸

¹³ 『보만재총서』에 수록된 개별 저술은 13종에 달하며 그 양적인 측면만 보자면 『위사』, 『본사』, 『고사십이집』이 각각 12권으로 다른 저술에 비해 압도적이다. 두 책과 『위사』의 지면 수량을 비교해 보면 『위사』의 분량이 약 23%에 달할 정도로 많다. 따라서 『위사』에 대한 검토는 서명응의 학문적 성과와 그 토대를 검토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이다.

¹⁴ 『保晩齋叢書』 冊1, 保晩齋叢書凡例, 5a: 是書凡十有三種, 雖各自爲一書, 門戶殊別, 朕皆以先天爲之主宰綱紀, 故以先天四演冠于首.

¹⁵ 『緯史』 卷首[『保晩齋叢書』 冊6], 緯史序, 2b: 古之聖人數極三才理妙一貫, 何道而然哉. 曰, 先天之道而已矣. 三代以降, 斯道寢晦, 漢唐宋明, 代各有地志, 但記其沿革·界至, 本之則無.

¹⁶ 『緯史』 卷首[『保晩齋叢書』 冊6], 起例 第1 八則, 5a: 及夫秦漢以後, 先天淪於丹竈, 周髀淪於西國, 二者不相爲用. 今先天之出於宋, 七百有餘年, 周髀之出於明, 二百有餘年, 而士異業業異門, 尙未有以一之. 肆竊撰成是書, 期欲六聖相傳之道, 象器既離, 復合於累千載之下也.

¹⁷ 배우성, “천하관의 변화”,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一志社, 1998), 382~396.

¹⁸ 김문식, “18세기 徐命膺의 세계지리 인식”, 『韓國實學研究』 11 (2006); 김문식, 앞 책 (각주 2), 204~237.

해당 연구는 서명응의 『위사』 편찬과 그 인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연구이다. 특히 『위사』의 권수를 중심으로 그 구성과 체제를 분석하고 서명응의 자연 이해를 지리학 분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다만 서명응이 선천역과 주비수법을 결합한 원리와 그것이 『위사』 본문에 관철되는 실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위사』 권수와 본문 일부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세계 지리지로서 『위사』의 편찬 방향과 기존 지리지와는 다른 서술상의 특징을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18세기 조선 학자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아시아 밖 세계를 재구성한 방식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보만재총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2종), 간송미술관(1종),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1종)에 모두 4종이 전한다. 이 글은 열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청구기호: 古0270-11]을 저본으로 삼아 작성하였다.¹⁹

2. 위도(緯度)로 구분한 세계

『위사』는 『보만재총서』 사별에 수록된 총 12권의 세계 지리지이다. 권수는 저술의 지향과 범례를 제시하며, 1권부터 11권은 본편으로서 각 지역의 지리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대체로 당대의 지리지들이 서명에 지(志) 혹은 여지(輿地)를 명기하여 성격을 드러낸 것과 달리 『위사』는 그 책제(冊題)만으로는 지리지임을 파악하기 어렵다.

『위사』는 위(緯)와 사(史)를 결합한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사는 『보만재총서』의 사부(四部) 체제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치 않다. 문제는 위인데 이와 관련하여 총서 사별에 속한 『주사』와 『본사』의 서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사』의 주(疇)는 홍범구주(洪範九疇)에서, 『본사』의 본(本)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²⁰ 『주

¹⁹ 『보만재총서』의 현존 상태에 대해서는 김문식, “『保晩齋叢書』 해제”, 서울大學校 奎章閣 韓國學研究院, 『奎章閣資料叢書 科學技術篇 - 保晩齋叢書』 1 (2006) 참고.

사』는 항목을 구주(九疇)로 나누고 각 편목 아래 기사에 관한 역대 기록과 서명응의 글을 재구성하였고,²¹ 『본사』는 기전체 형식을 빌려 곡식, 채소, 과일, 나무 등을 독특한 편제로 정리하였다.²² 그렇다면 “위”는 무엇을 뜻할까?

땅을 말하면서 하늘에 근거하지 않고, 하늘을 말하면서 도(道)에 근거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 요체를 얻을 수 없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늘의 북극(北極)으로부터 적도(赤道)까지, 적도로부터 남극(南極)까지 모두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지나는 길로써[經度] <하늘을> 나눈[節] 바로 직포(織布)의 씨실(씨줄)과 같으므로 위도(緯度)라 한다. 위도는 일월성신에 대해서 또한 버리가 되는 것이니 하물며 <일월성신이> 둘러싸고 있는 땅에 대해서랴.²³

위의 『위사』 서문에 따르면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평행하게 그은 선”이 하늘에 존재하고, 일월성신이 이 선을 따라 운행하는데 이 선을 위도라 하였다. 지상 역시 하늘에 상응하므로, 서명응이 말하는 “위”는 북극으로부터 적도까지 적도에서 남극까지 직물의 씨줄과 같이 그어져 있는 가상의 선, 바로 위선(緯線)이 나타내는 도수인 “위도(緯度)”인 것이다.

서명응은 위도가 북극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일월성신의 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주야(晝夜)의 장단(長短)과 동서(東西)의 절기(節氣) 변화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그는 하늘의 도가 북극 위도(北極緯度)에 근본을 둔다고 보았고, 삼대(三代) 이전에는 모두 북극 위도로써 천하의 도리(道里)와 영역(版圖)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했다.²⁴ 삼대

20 『疇史』 卷上[『保晚齋叢書』 冊5], 疇史序, 2a: “疇史, 箕子之史也. 箕子之史也而曰疇史, 何也. 以九疇紀箕子事實而爲之史也.”; 『本史』 卷[『保晚齋叢書』 冊3], 本史序, 2a · b: “本史以紀志系傳, 叙農政之始終也. 叙之維何. …… 於是統名之曰本史, 則以農政天下之大本也.”

21 『주사』는 서문의 첨가와 일부 편목의 명칭 수정 외에는 서명응이 평안감사 시절 간행한 『기자의기(箕子外記)』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김문식, “徐命膺 著述의 種類와 特徵”, 竹夫李饒衡敎授 定年退職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韓國의 經學과 漢文學』 (태학사, 1996), 158-161; 김문식, 앞 책 (각주 2), 159-172].

22 康定燮, “18세기 후반 徐命膺의 『本史』 편찬과 『本史』 구성 체제”, 『한국학논총』 49 (2018); 정명현, “서유구(徐有渠, 1764~1845)의 선진 농업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의상경제책擬上經界策』의 해제 및 역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20-23.

23 『疇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緯史序 2a: 言乎地而不本諸天, 言乎天而不本諸道, 終無以得其要矣. 何者, 天自北極距赤道, 自赤道距南極, 皆所以節日月星辰之經度, 如織布之緯, 故曰緯度. 緯度, 於日月星辰, 且爲之紀, 況所包之地乎.

이후에는 북극위도를 기준으로 지상의 영역을 헤아리던 전통이 소멸하면서 지리지에 해당 항목이 반영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이후 제작된 지리지에서는 연혁과 경계의 서술에 치중할 뿐 본원(本原)에 해당하는 위도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²⁵ 이에 서명응은 북극위도에 따른 지역의 구분을 지리지 편찬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범례를 만들었다.²⁶ 또한 해당 범례를 손자인 서유구에게 주어 구체적인 『위사』 편찬 작업을 위임했다.²⁷

서명응이 마련한 범례는 『위사』 권수의 「기례(起例)」, 「입도(立圖)」, 「제강(提綱)」, 「거요(舉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례」는 오늘날의 일러두기와 유사한 성격인데 『위사』의 편찬 연유를 비롯해 지리지 독해에 유용한 사항을 여덟 가지로 정리하였다. 「입도」는 주자(朱子, 1130~1200)가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제시한 아홉 가지 도설(圖說)을²⁸ 차용해서 구고법(勾股法)으로 하늘과 땅을 헤아리는 방법을 아홉 가지 도설로 제시한 것이다.²⁹

「제강」은 소옹(邵雍, 1011~1077)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의 경세도(經世圖)에서 원회운세(元會運世)를 기록한 것에 근거해 서명응 자신이 새

24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緯史序, 2a·b: 是以人北行二百五十里, 見北極漸高一度, 南行二百五十里, 見北極漸低一度, 而晝夜長短以之不同. 其東西節氣, 亦以此法準之, 每二百五十里, 爲早晚之加減, 則是北極乃引丈尺寸於地也. 故由三代以上, 皆以北極緯度, 定天下之道里. 堯命羲和宅四方, 非惟正四方之晝夜節氣, 亦因此正天下之版圖也.

25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緯史序, 2b (각주 15).

26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起例 第1 八則, 8a: 一. 極度地里分配之際, 難保其無差誤失實處, 後人若不曉分配之法門, 則雖欲就加釐正, 其道無由, 故別爲立圖·提綱·舉要三篇, 載之卷首.

27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緯史序, 2b: 愚不自揆, 暇日撰定義例, 授孫有渠, 以北極緯度, 爲各地之品節, 而本之於先天之道, 彙成緯史十有二卷.

28 『주역본의(周易本義)』에는 ①하도(河圖), ②낙서(洛書), ③복희팔괘차서(伏羲八卦次序), ④복희팔괘방위(伏羲八卦方位), ⑤복희육십사괘차서(伏羲六十四卦次序), ⑥복희육십사괘방위(伏羲六十四卦方位), ⑦문왕팔괘차서(文王八卦次序), ⑧문왕팔괘방위(文王八卦方位), ⑨괘변도(卦變圖)가 제시되어 있다[朱熹, “圖說”, 『周易本義』].

29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起例 第1 八則, 8a: 立圖者, 依朱子易本義九圖之例, 凡勾股度天度地之事, 釐爲九圖, 以明此事, 皆有必然之數法, 非人所能緣飾也; 아홉 가지 도설은 다음과 같다. ①선천삼기묘합도(先天三紀妙合圖), ②선천오대전체도(先天五帶全體圖), ③선천생출구고도(先天生出勾股圖), ④선천삼오천정도(先天參伍天頂圖), ⑤일영삼절리차도(日景三截里差圖), ⑥일영가감절기도(日景加減節氣圖), ⑦일영각지고도도(日景各地高度圖), ⑧일영대수찬죽도(日景大數攢簇圖), ⑨오복팔주북남도(五服八州北南圖)[『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9a~60b].

롭게 구상한 지리지의 분류 방식을 “선천의 수법(數法)”으로 목록화하여 드러내고자 했다.³⁰ 「거요」는 김이상(金履祥, 1232~1303)이 『자치통감전편(資治通鑑前編)』에서 요지를 제시하기 위해 활용했던 예와 같이 세계 각국과 여러 지역의 위치를 간략하게 보이고자 하였다.³¹

「입도」와 「제강」을 확인하면 세계를 위도에 따라 크게 다섯 지역으로 나눈 후 세 기후대로 구분[三紀五帶]했음을 알 수 있다. 북극과 남극 지대의 북축양의(北軸兩儀), 남축양의(南軸兩儀), 중위도 지역의 주복사상(州服四象), 주저사상(洲砥四象), 적도 부근의 중형팔괘(中衡八卦)가 그것이며, 이들의 기후대를 각각 한대(寒帶)·난대(暖帶)·열대(熱帶)로 나누었다.³² 서명응의 이러한 구분은 복희의 선천사도(先天四圖)에 근거한 것이다.

서명응은 천지 구성의 원리가 복희가 제정한 선천역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³³ 이러한 이해에 따라 그는 선천사도에 근거해 지구의 구조와 그 원리를 설명하는 여러 도상을 「입도」에 수록하였다. 그 가운데 선천삼기묘합도(先天三紀妙合圖), 선천오대전체도(先天五帶全體圖)가 지구상의 지역 구분 및 기후대 설정에 관한 서명응의 이해 방식을 잘 보여준다.³⁴

선천삼기묘합도는 복희팔괘차서도(伏羲八卦次序圖)의 태극(太極)에서 양의(兩儀) → 사상(四象) → 팔괘(八卦)가 생성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지구 위의 남·북양의(南·北兩儀) - 주복·주저사상(州服·洲砥四象) - 중형팔괘(中衡八卦) 지역의 구분을 도식화한 것이다. 선천오대전체도는 복희팔괘 방위도(伏羲八卦方位圖)를 빌려 태양의 궤도와 분지[分至: 春分·秋分·夏至·冬至]·사립[四立: 立春·立夏·立秋·立冬]의 연관을 보여준 후 한대 - 난대 - 열대의 기후대를 설명하고자 했다.

³⁰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起例 第1 八則, 8a·b: 提綱者, 依邵子經世圖, 紀元會運世之例, 以原書目錄, 文之以先天數法, 爲緯於經世, 經世以氣運之古今而堅言之也, 提綱以天地之位置而橫言之也.

³¹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起例 第1 八則, 8b: 舉要者, 依金仁山通鑑前編, 撰舉要, 擬稽古之例, 節略原書中, 某國某府, 在北極幾度之下, 以爲此篇.

³²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先天三紀妙合圖, 9b;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提綱 第3, 61a-69b.

³³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五服八州北南, 60b: 義皇以先天財成天地之道, 大禹以先天分定九州之域, 信乎道統之傳有自來矣.

³⁴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先天三紀妙合圖, 9b;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先天五帶全體圖, 11b, 12a.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과 기후대의 경계를 24° 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서명응은 황도가 적도의 안팎으로 출입하는 도수가 24° 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대와 열대를 구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그는 1년을 24기로 구분하는 방식 역시 24° 에서 착안했다고 보았다.³⁵ 그런데 서명응을 비롯한 이 집안 사람들은 이미 여러 천문역법서를 통해 황도가 적도 안팎으로 출입하는 도수 즉 황적교각이 23.5° 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위사』에도 명시하고 있다.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24° 를 기준으로 지역과 기후대를 구분한 것은 천지만물의 근본 원리로 인식한 선천역의 상수와 세계의 형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려 했던 서명응의 학문적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명응은 먼저 지구의 북극으로부터 적도의 북쪽에 이르는 지역과 지구의 남극으로부터 적도의 남쪽에 이르는 지역을 24° 씩 셋으로 균분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72^\circ[24 \times 3 = 72^\circ]$ 에 해당하는 지역이 분할되고, 적도의 남북으로 18° 의 지역만이 남게 된다[$90 - 72 = 18$]. 그는 이 적도 남북의 18° 지역, 합하여 36° 지역이 적도정도(赤道正度)에 들어가는 것이라 보았고, 이를 열대의 중수(中數)로 정했다. 그런 다음 열대의 남북으로 위치한 세 개의 24° 지역을 다시 해그람자의 변화에 따라 세분하였다.³⁷ 이상과 같은 지구의 분할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특기할 점은 서명응이 제시한 위도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위도(latitude)의 개념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 지리학에서 위도는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이 지축이 북극성을 향하고 있으며 북극과 남극을 통과한다고 가정한 뒤 이 축에 수직을 이루면서 북극과 남극의 중간 지점에서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가상의 평면을 상정한다. 해당 평면은 지표면과 교차하면서 원을 만드는데 이

35 『緯史』 卷2[『保晚齋叢書』 冊7], 州服四象 第2, 2a: 今夫寒熱諸帶, 必以二十四度爲率者, 蓋與一年之以二十四氣, 同受法於黃道出入赤道內外各二十四度之象.

36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日景三截里差圖, 22b: 赤道北諸節氣, 全在地平上, 故日躔赤道, 春分以後出地平, 逐漸上升, 至夏至規二十三度半, 又自此逐漸降下, 以至于秋分, 故半年爲晝.

37 『緯史』 卷2[『保晚齋叢書』 冊7], 州服四象 第2, 2b: 自北極沿[沿]而下之, 至于赤道之北, 自南極溯而上之, 至于赤道之南, 悉以二十四度均分焉, 則其入赤道正度者, 南北各十八度, 合三十六度, 以是定爲熱帶之中數, 然後遂就其南北爲二十四度者各三, 更用日景之變, 節節其細度.

를 적도(equator)라 하고 0°로 삼는다.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며, 0°로부터 양방향으로 90°에 이르기까지 평행선이 존재하는데 이를 위선이라 한다.³⁸

현재의 위도가 적도를 0°로 삼는 것과는 달리 『위사』 속 적도는 0의 개념이 없던 시기이기에 1°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오늘날의 위도가 적도 평면과 해당 지점을 통과하여 지구 중심에 이르는 선이 만들어 내는 각거리로 정확히 수치화되는 것에 비해 『위사』의 위도는 지구 표면을 구분하기 위한 띠 즉 대(帶)의 성격이 더 강하다.

표 1. 『위사』의 지역과 기후대 구분

세계의 구분			위도대(°)		도수의 범위(°)		동서의 분류	선천역	기후대
北半球	北軸兩儀	北軸陽儀	90~67		24	48	地球初位 地球中東 地球中西 地球終東 地球終西	太極生兩儀	寒帶 (二極寒帶之限)
		北軸陰儀	66~43		24		方國初東 方國初西 方國中東 方國中西 方國終東 方國終西		暖帶·寒帶 (暖寒二帶之間)
	州服四象	北州天位	42~41		2	6	方國外東 方國內東 方國內西 方國外東	兩儀生四象	暖帶 (中土暖帶之限)
		北州人位	40~39		2				
		北州地位	38~37		2				
		中州天位	36~35		2				
		中州人位	34~33		2				
		中州地位	32~31		2				
		南州	30~29		2				

³⁸ 현대 지리학의 경위선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Terry A. Slocum · Robert B. McMaster · Fritz C. Kessler · Hugh H. Howard 지음, 이건학 · 김감영 · 김영호 · 김영훈 · 신정엽 · 이상일 역, 『지도학과 지리적 시각화』, (시그마프레스, 2014) 128~144 참고.

		天位						
		南州人位	28~27	2				
		南州地位	26~25	2				
赤道	中衡八卦	中衡北軸	24~19	6	48	方國偏東 4	四象生八卦	熱帶・暖帶 (熱暖二帶之間)
		中衡北半	18~1	18		方國偏東 3		熱帶 (中宮熱帶之限)
		中衡南半	1~18	18		方國偏東 2		
		中衡南軸	19~24	6		方國偏東 1		
						方國偏西 1		熱帶・暖帶 (熱暖二帶之間)
南半球	洲坻四象	三才爻位	25~42	18	48	方國外東	州服四象之反對	暖帶 (中土暖帶之限)
		南軸陽儀	43~66	24		方國內東		暖帶・寒帶 (暖寒二帶之間)
	南軸兩儀	南軸陰儀	67~90	24		方國內西	北軸兩儀之反對	寒帶 (二極寒帶之限)
						方國外西		
						地球終東		
						地球終西		
						地球中東		
						地球中西		
						地球初位		

3. 위도를 통한 각 지역의 위치 파악: 극위(極緯)와 황적경(黃赤經)

지리지 편찬 과정에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문목(問目), 편목(編目), 절목(節目) 등으로 불리는 항목과 그 나열 순서인 목차를 수립하는 일이다. 항목의 설정은 지리지의 방향성과 내용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지리지의 편찬은 해당 왕조의 영역을 확정하고 그 영토 안에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실태를 취합한다는 점에서 통치 자료의 획득 및 축적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전국 지리지는 통일성을 위해 편찬 과정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중앙에서 각 지방행정 단위별로 일정한 작성 방침과 조사 항목을

하달하면 해당 지방은 관련 내용을 조사·정리하여 중앙에 상신하는 작업을 거쳤다. 중앙에서 지방에 요청한 구체적인 작성 항목을 살펴보면 지리지 편찬의 목적과 방향성을 보다 선명히 알 수 있다.³⁹ 지역별로 보고된 자료에는 차이가 있었겠지만, 중앙에서 항목을 일관하게 정리하여 편찬한 지리지는 국정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한편 기초 자료로서의 성격 때문에 전통적인 지리지들은 필연적으로 유사한 항목 구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⁴⁰ 조선시대 대표적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31개의 항목을,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는 21개의 항목을 갖추고 있는데 그 가운데 16개의 항목이 두 지리지에 공통으로 등장한다.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토산(土產), 관량(關梁), 풍속(風俗), 궁실(宮室), 학교(學校), 사묘(祀廟), 능묘(陵墓), 고적(古跡), 명환(名宦), 인물, 유우(流寓), 열녀, 산천, 형승(形勝)이 그것이다.⁴¹ 이러한 사실은 전통 지리지의 편찬 과정에서 일정한 공통 항목이 잠재적으로 요구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위사』의 항목 구성과 목차는 앞선 두 지리지 및 동시대의 다른 지리지들과 견주어 보아도 간략하고 독창적인 구조를 지닌다.

『위사』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나라 이름이나 지역명을 큰 글자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 예하의 지역은 지역명 아래로 극위(極緯), 황적경(黃赤經), 풍속, 산천(山川), 토산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물론 모든 지역이 위와 같은 항목을 구비하고 있진 않지만, “극위”와 “황적경”은 빠짐없이 적혀 있다. 이로 볼 때 『위사』의 항목 구성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여타의 지리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극위와 황적경이다. 서명응은 「

39 전국 지리지의 편찬 과정과 목적을 살펴보는 데에는 조선 초기의 사례가 유용하다. 조선 왕조의 개창 이후 국가 건설 과정에서 직면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영토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내부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편찬된 것이 『세종실록지리지』이다. 이후 국가 자원 파악을 토대로 역사·문화적 자산을 정리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고, 그 성과가 『동국여지승람』이다. 이에 대해서는 徐仁源,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해안, 2002); 정두희, 『통치 영역의 확장과 그 지배권의 천명: 조선 초기 지리지 편찬의 역사적 의미』, 『왕조의 얼굴』(서강대학교 출판부, 2010)을 참고.

40 16세기 이후 활발히 작성되는 읍지도 항목 구성이 유사하다.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3 (1987); 오상학, 『땅의 표현과 기술』, 『하늘, 시간, 땅에 대한 전통적 사색』(국사편찬위원회, 2007).

41 정두희, 앞 책, 211.

기레』에서도 극위와 황적경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지금 여러 나라의 아래에 별도로 극위·황적경 두 항목을 세워 여러 나라의 극도와 주야·절기를 한번 책을 열면 환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⁴²

여기에서 극위는 앞서 언급한 위도이다. 서유구는 극위 항목에 모든 지역의 극고(極高)와 천정거극(天頂距極) 도수를 기재하였다. 극고란 북극출지고도, 즉 해당 지역의 위도를 말하는 것이고, 천정거극은 해당 지역의 천정(天頂)이 북극으로부터 떨어진 도수를 뜻한다. 특정 지역의 천정거극을 구하려면 90°에서 해당 지역의 극고를 감산하면 된다[90°- 극고 = 천정거극]. 조선국(朝鮮國) 한성부(漢城府)를 예로 들면 극고는 37° 50′, 천정거극은 52° 10′ 인데,⁴³ 90°- 37° 50′ = 52° 10′ 이 된다.

다음으로 황적경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황적경이라고 하면 황경(黃經)과 적경(赤經)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위사』 본문에 보이는 황적경은 그러한 뜻과 다소 거리가 있다. 앞서 제시한 『기레』의 구절을 다시 주목해 보면 황적경의 쓰임은 주야와 절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황도를 따라 운행하는 태양의 운동이 적도와 교차하면서 1년 사계절의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 『위사』의 황적경 항목에서는 각 지역의 계절별 태양 일출입(日出入) 시각과 그로 인한 밤낮의 길이 변화를 서술하려고 했다. 다시 한성부를 살펴보면 황적경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夏至)의 일출(日出)은 인정(寅正) 2각(刻) 12분(分), 낮<의 길이는> 58각 7분, 일입(日入)은 술초(戌初) 1각 3분이고, 동지(冬至)의 일출은 진초(辰初) 1각 3분, 낮<의 길이는> 37각 8분, 일입은 신정(申正) 2각 12분이다.⁴⁴

아울러 여기에 규표(圭表)를 이용하여 측정한 이지이분[二至二分: 夏至

42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起例 第1 八則, 6b: 今於諸國之下別立極緯黃赤經二目, 使諸國極度及晝夜節氣, 一開卷瞭然.

43 『緯史』 卷4[『保晚齋叢書』 冊8], 州服四象 第2, 北州地位 2-3, 北極出地三十八度, 方國外東, 朝鮮國, 京畿 1, 漢城府, 極緯, 9a: 極高, 三十七度五十分, 天頂距極, 五十二度十分.

44 『緯史』 卷4[『保晚齋叢書』 冊8], 州服四象 第2, 北州地位 2-3, 北極出地三十八度, 方國外東, 朝鮮國, 京畿 1, 漢城府, 黃赤經, 9a: 夏至日出, 寅正二刻十二分, 晝五十八刻七分, 日入戌初一刻三分, 冬至日出辰初一刻三分, 晝三十七刻八分, 日入申正二刻十二分.

·冬至·春分·秋分] 정오(午正)의 태양의 위치와 남중고도(南中高度), 그리고 해그림자의 길이까지 첨부하였다<표 2>.45 이상과 같이 극위와 황적경이라는 항목의 설정과 그 안에 수록된 정보는 기존 지리지와 구별되는 『위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표 2. 한성부 - 하지·동지·춘분·추분의 태양 위치, 남중고도, 해그림자

	태양의 위치	남중고도	해그림자의 위치	해그림자의 길이
夏至 午正	表南	75° 40′	表北	3度 4分
冬至 午正	表南	28° 40′	表北	21度 57分
春·秋分 午正	表南	52° 10′	表北	9度 19分

「입도」의 세 가지 그림도 위와 관련이 깊은데 ①일영삼절리차도(日景三截里差圖), ②일영가감절기도(日景加減節氣圖), ③일영각지고도도(日景各地高度圖)가 그것이다. ①은 위도의 변화에 따른 24절기의 일출과 일입 시각, 밤낮의 길이, 신흠분(晨昏分)을46 도해한 것이고,47 ②는 황적거도(黃赤距度), 즉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면서 생기는 각거리, 황도가 적도 북쪽이나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24절기에 따라 서술한 다음 이에 근거해 해당 지역의 위도를 기준으로 24절기의 태양의 남중고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도해한 것이며,48 ③은 북위 42°에서 25°까지 각 위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24절기 시간별 태양 남중고도의 변화를 그린 것이다.49

45 『緯史』 卷4[『保晚齋叢書』 冊8], 州服四象 第2, 北州地位 2-3, 北極出地三十八度, 方國外東, 朝鮮國, 京畿 1, 漢城府, 黃赤經, 9a: 夏至午正, 日在表南, 高七十五度四十分, 景在表北, 長三度四分. 冬至午正, 日在表南, 高二十八度四十分, 景在表北, 長二十一度五十七分. 春秋分午正, 日在表南, 高五十二度十分, 景在表北, 長九度十九分.

46 신흠분(晨昏分)이란 서학에서 몽롱영(朦朧影)을 말한다. 몽롱영은 그 그림자가 어렴풋해서 낮인데 낮이 아닌 것 같고, 밤인데 밤이 아닌 것 같은 현상이다. 대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지평 18° 내에 모두 햇빛이 있는 것을 신흠분이라고 한다. 신흠분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체로 춘분과 추분에는 각분(刻分)이 적고, 하지와 동지에는 각분이 많으며, 북쪽일수록 각분이 많고, 남쪽일수록 각분이 적다[『攷事十二集』 卷[『保晚齋叢書』 冊26], 子集協紀, 晨昏分法, 22a].

47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日景三截里差圖, 20a~26b.

48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日景加減節氣圖, 27a~30a.

49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日景各地高度圖, 30b~49a.

서명응은 이러한 도설을 통해 특정 지역의 위도를 확정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지·동지·춘분·추분을 포함한 24절기의 태양의 남중고도와 해그림자의 길이를 계산해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북극출지 40도[북위 40°]인 지역의 경우 춘분 오정의 남중고도는 얼마나 될까? ②에 의거하여 이것을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⁰

춘분 때 태양은 적도의 북쪽 23° 29′ 에 위치한다. 북위 40° 지역에서 측정한 적도의 지평 고도는 50°이다[90°-위도]. 여기에 23° 29′ 를 더하면 그것이 바로 북위 40° 지역에서 하지 오정에 관측할 수 있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된다[50°+23° 29′ =73° 29′]. 이것이 가법(加法)이다.

동지 때 태양은 적도의 남쪽 23° 29′ 에 위치한다. 북위 40° 지역에서 측정한 적도의 지평 고도는 50°인데, 적도 남쪽에 있는 절기의 경우에는 지평 고도에 서 황적거도를 빼면 그것이 바로 북위 40° 지역에서 동지 오정에 관측할 수 있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된다[50°-23° 29′ =26° 31′]. 이것이 감법(減法)이다.

이상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위사』에 수록된 극위나 황적경의 내용에 관측에 근거한 실측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중국, 조선 등과 같이 일부 실측 자료에 근거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는 그 지역의 위도를 바탕으로 산출해 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사』를 편찬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은 지상 위에 산재한 여러 국가나 지역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위도를 확정하는 것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⁵⁰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立圖 第2 九圖, 日景加減節氣圖, 30a: 假如北極出地四十度之地, 以夏至日躔赤道北二十三度二十九分, 加赤道距地平五十度, 得七十三度二十九分, 卽夏至午正日高地平度分, 其景三度三十三分, 此加法也. 以冬至日躔赤道南二十三度二十九分, 減赤道距地平五十度, 得[得]二十六度半弱, 卽冬至午正日高地平度分, 其景二十四度四分, 此減法也.

4. 미지(未知)의 영역과 자료 활용: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와 『직방외기(職方外紀)』

「기례」를 살펴보면 서명응과 서유구가 위도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와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특정 혹은 추정할 수 있는 문헌은 두우(杜佑, 735~812)의 『통전(通典)』, “곤여통도(坤輿通圖)”, “일통지(一統志)” 등이다. 서명응은 두우가 지리의 근본이 북극고도[極度]에 있음을 인지하고 그 대략을 『통전』 주군편(州郡篇)에 제시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두우가 『통전』을 쓰던 시기는 선천과 주비의 내력을 알 수 없게 되어 천문역산학이 완벽하지 않았으므로 서명응은 두우가 극도의 단서만을 책에 남겼다고 생각했다.⁵¹

실제 『통전』 「주군(州郡)」을 검토해 보면 위도나 그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 여타 지리지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아래 사방의 경계와 노정(路程)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⁵² 서명응과 서유구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도를 추산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명확히 실증하기는 어렵다.⁵³

다만 『통전』 「직관(職官)」에 비서감(秘書監)의 여러 역할과 기능, 관직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태사국(太史局)에 관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소속 관원인 승(丞)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당대에 수행된 관측 사업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와 그 예하 지역의 북극고도가 확인된다.⁵⁴

⁵¹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起例 第1 八則, 6a·b: 一. 杜佑通典州郡篇, 槩舉諸地極度若干條, 當曆象殘缺之後, 能知地理之本於極度, 可見其識解高明, 非復後人之所可幾及矣. 然只舉其端, 未竟其緒, 此則先天周髀失傳之致也.

⁵² 주지하다시피 두우의 『통전』은 중국 역대 의 전장제도(典章制度)를 실은 대작이다. 총 200권이며 식화(食貨), 선거(選舉), 직관(職官), 예(禮), 악(樂), 병(兵), 형(刑), 주군(州郡), 변방(邊防)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군은 14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전』의 171권부터 184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도, 북극고도, 극위 등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는 데 활용한 『통전』은 청건륭24년무영전각본(淸乾隆十二年武英殿刻本), 중화서국 교점본(北京, 中華書局, 1988)이다.

⁵³ 서명응은 『위사』 서문에서 북극고도가 250리마다 1도씩 변경된다고 기술했다(각주 24). 이를 『통전』 「주군」에 적힌 각 지역의 사방 경계, 노정 정보와 연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번잡스러운 작업임은 분명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곤여통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곤여통도는 그 어감에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곤여전도(坤輿全圖)」와 같은 천하도나 『곤여도설(坤輿圖說)』, 『혼개통헌도설(渾蓋通憲圖說)』류의 한역서학서로 추정된다. 「기례」에 기술된 곤여통도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해당 자료의 활용 방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실체를 특정할 수 있다.

다만, 북남 두 축(軸)의 극도는 참고하여[考据]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곤여통도와 사지(史志)에 기재된 것을 서로 참조하였고, 기타 여러 나라의 도리(道里) 또한 모두 임시적인 편의[權宜]에 따라 분배하였으니 반드시 그 진수(眞數)를 얻은 것은 아니다.⁵⁵

북남 두 축의 극도는 북축양의(北軸兩儀)와 남축양의(南軸兩儀) 가운데 북극출지와 남극출지 90°~67°인 북축양의(北軸陽儀)와 남축음의(南軸陰儀)인 지역을 말한다. 북축양의는 종(縱)으로 지구(地球) 초위(初位)·중동(中東)·중서(中西)·종동(終東)·중서(終西)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극해(極海), 동빙해(東氷海), 서빙해(西氷海), 유귀국(流鬼國)·구국(狗國), 박마국(駁馬國)·귀국(鬼國)·단인국(短人國)·우제돌궐국(牛蹄突厥國)이 속해 있다<표 3>.

표 3. 북극 일대의 구분과 여러 국가

도수의 범위	북극 일대 구분				
90°~67°	北軸兩儀				
	北軸陽儀				
	地球初位	地球中東	地球中西	地球終東	地球終西
	極海	東氷海	西氷海	流鬼國 狗國	駁馬國 鬼國 短人國 牛蹄突厥國

54 『通典』 卷26, 職官 8: 開元二年, 復改令爲監, 改一員爲少監. 十四年復爲太史局, 置令二人, 復隸祕書, 後又改局爲監. 丞二人. 司馬彪云, 太史有丞一人, 魏以下歷代皆同. 隋置二人, 煬帝減一人. 大唐初不置丞, 久視初改爲渾儀監, 始置丞二人. 長安二年又省, 景龍二年復置. …… 開元十二年四月, 命太史監南宮說及太史官大相元太等, 馳傳往安南朗·蔡·蔚等州, 測候日影, 迴日奏聞. 數年伺候及還京, 僧一行一時校之, 安南景北極高二十一度六分, 冬至日影, 七尺九寸四分, 春秋二分影, 二尺九寸三分, 夏至影在表南, 三寸三分 …….

55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卷6], 起例 第1 八則, 6b: 但北南二軸之極度, 無從考据, 以坤輿通圖[圖]及史志所載, 互相參照, 其他諸國之道里, 亦皆權宜分排, 未必得其眞數.

이 지역은 대체로 현재 북극해 연안에 위치하여 중국이나 조선의 전통적인 사부류(史部類) 문헌에서는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이에 서명응과 서유구는 곤여통도와 사지(史志)를 상호 참조하여 지리지 본문을 기술했다고 밝힌 것이다.

지리지 본문에서 위 국가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면 두 사람이 「기례」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구국에 대한 서술을 보면 『광박물지(廣博物志)』와 『삼재도회(三才圖會)』를 동원하여 그 지리적 위치를 고증하였다.

『위사』에서는 구국이 남해로부터 회계[會稽, 현재 저장성 사오싱시(浙江省 紹興) 일대]까지 삼천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 『광박물지』의 기록과⁵⁶ 구국에서 응천부(應天府)까지 이르는 데는 2년 2개월이 소요된다는 『삼재도회』의 설명을⁵⁷ 보고 두 책의 내용이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천가(步天歌)』에서도 구국과 관련한 내용을 찾았다. 그들은 구국성(狗國星)을 보며 별자리가 “성기축궁(星紀丑宮)의 동북방에 있다”고 하였으며,⁵⁸ 이마두(利瑪竇)의 곤여통도를 보면 구국은 “북해 연안의 나황야[羅荒野, 시베리아] 동쪽에 있다고” 하였다.⁵⁹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명응과 서유구가 참고한 곤여통도는 이마두 즉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곤여만국전도」인 것이다. 실제 「곤여만국전도」를 확인하면 북해 연안 나황야의 동쪽에 구국이 있다. 저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후 “지금 마땅히 『보천가』와 곤여통도로 바름을 삼는다”라고 하였다.⁶⁰

56 『廣博物志』 卷48, 鳥禽 5: 南海去會稽三千里有狗國。國中有飛延鳥, 似鼠, 兩翼如鳥, 而脚赤。

57 『三才圖會』 人物 卷12: 狗國, 人身狗首, 長毛不衣, 語若犬嗥。其妻皆人, 能漢語, 衣貂鼠皮, 穴居食生, 妻女食熟, 自相嫁娶。昔有中國人, 至其國, 妻使逃歸, 與筋十餘隻, 教其每走十餘里, 遺一筋, 狗見其家物必銜歸, 其人乃脫, 則追不及矣。至應天府, 行二年二箇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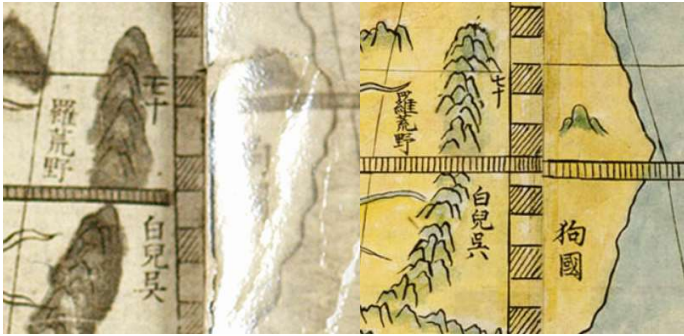
58 『步天歌』: 斗六星, 二十六度四分度之一, 對井, 摩蝎宮, 丑地, 吳之分。六紅其狀似北斗。魁上立紅三相對。天弁立上三紅九。斗下圓紅十四星。…… 狗國四鳥雞下生。…… 12차(次)의 성기(星紀)는 황도 12궁(宮)의 마갈궁(摩蝎宮)에 해당한다.; 『體禮準』 卷上(『保晚齋叢書』 冊19), 玄武準, 星紀丑宮, 25b: 狗國四星黑, 在狗西南, 對井宿之狼, 主北狄。

59 『緯史』 卷1(『保晚齋叢書』 冊6), 北軸兩儀 第1, 北軸陽儀 1-1, 地球終東, 狗國, 106a: 廣博物志云, 南海去會稽三千里有狗國, 三才圖[圖]會云, 自狗國至應天府, 二年二月乃達, 二說相合, 而考步天歌, 則星紀丑宮東北方, 有狗國星。利瑪竇坤輿通圖[圖], 則狗國在北海邊, 羅荒野之東。

이는 지리 정보에 관한 여러 참고문헌이 존재했지만 『보천가』와 「곤여만국전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위사』에 기재된 구국의 극위는 극고 70°, 천정거극 20°인데,⁶¹ 「곤여만국전도」에도 위도 70° 선상에 구국이 위치하는 사실과 부합한다.

그림 1. 「곤여만국전도」의 나황야와 구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사진본(좌, 奎25289), 도호쿠대학부속도서관(東北大学附属図書館) 소장 가노문고(狩野文庫)본(우, 3/9389/2) 이하 동일



다른 사례로 우제돌궐국을 들 수 있다. 『위사』에서는 이 지역과 관련해서도 「곤여만국전도」를 거론하고 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지역 사람들은 모두 사람의 몸에 소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나라에는 호로하(瓠蘆河)라는 물이 있는데 여름과 가을에 얼음의 두께가 2척이나 되고 봄과 겨울에는 밑바닥까지 언다고 하였다.⁶² 글자의 출입이 있기는 하나 이 내용 역시 「곤여만국전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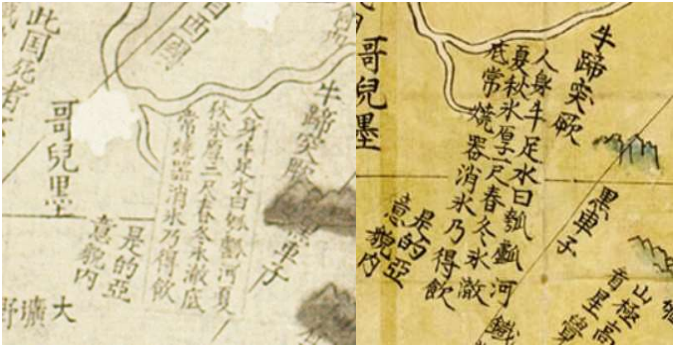
⁶⁰ 『緯史』 卷1[『保晚齋叢書』 冊6], 北軸兩儀 第1, 北軸陽儀 1-1, 地球終東, 狗國, 106a: 今當以步天歌·坤輿通圖[圖]爲正.

⁶¹ 『緯史』 卷1[『保晚齋叢書』 冊6], 北軸兩儀 第1, 北軸陽儀 1-1, 地球終東, 狗國, 極緯, 106a: 極高七十度, 天頂距極二十度.

⁶² 『緯史』 卷1[『保晚齋叢書』 冊6], 北軸兩儀 第1, 北軸陽儀 1-1, 地球終西, 牛蹄突厥國, 107a · b: 坤輿通圖[圖]云, 其人皆人身牛足, 國有瓠蘆+瓜河, 夏秋水厚二尺, 春冬則徹底.

⁶³ 利瑪竇(Matteo Ricci), “牛蹄突厥”, 「坤輿萬國全圖」: 人身牛足, 水曰瓠蘆河, 夏秋水厚一尺, 春冬水徹底. 常燒器消水乃得飲.

그림 2. 「곤여만국전도」의 우제돌곶



반대편 극지방인 남축음의의 구획 방식 또한 북축양의와 같다<표 4>.

표 4. 남극 일대의 구분과 여러 국가

도수의 범위	남극 일대의 구분				
90°~67°	南軸兩儀				
	南軸陰儀				
	地球初位	地球中東	地球中西	地球終東	地球終西
	極島	東島	西島	香椒島 鸚鵡地	墨瓦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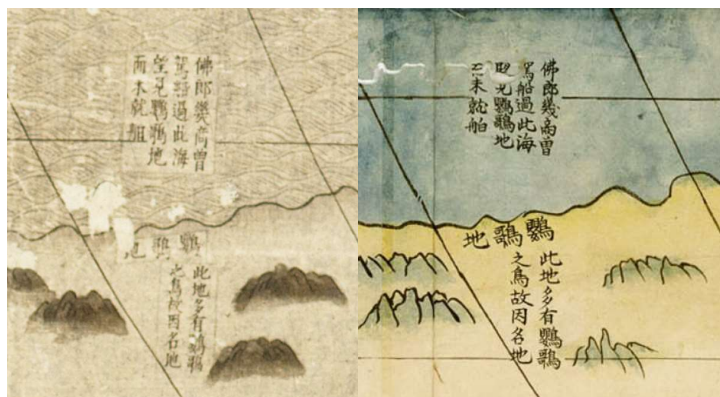
극도, 동도, 서도는 북축양의의 극해, 서빙해, 동빙해와 상응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⁶⁴, 향초도, 앵무지는 「곤여만국전도」의 설명을 차용하였다.

64 『緯史』 卷7[『保晚齋叢書』 冊12], 南軸兩儀 第5, 南軸陰儀 5-2, 地球初位, 極島, 117a: 極島, 與北軸地球極海爲之對位.; 『緯史』 卷7[『保晚齋叢書』 冊12], 南軸兩儀 第5, 南軸陰儀 5-2, 地球中東, 東島, 117a: 東島, 與北軸地球西水海爲之對位.; 『緯史』 卷7[『保晚齋叢書』 冊12], 南軸兩儀 第5, 南軸陰儀 5-2, 地球中西, 西島, 117a: 西島, 與北軸地球東水海爲之對位.

곤여통도에 이르기를 “불랑기(佛郎機) 상인이 일찍이 남쪽 바다의 끝까지 나아갔다가 멀리 광막(曠漠)한 산지(巖陸)를 멀리서 바라보았는데[遙望] <거기에> 앵무새가 무수히 모여 있는데[萃止], <그 모습이> 위엄이 있고 씩씩하여[凜然] 감히 그 배를 정박하러 나아가지 못하고 다만, <육지를> 앵무지로 이름하고 돌아왔다.”고 하였다.⁶⁵

현존 「곤여만국전도」에는 해당 내용을 앵무지 사이에 나누어 기술하였다.

그림 3. 「곤여만국전도」의 앵무지



전: 불랑기 상인이 일찍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지나다가 앵무지를 바라보았으나 배로 이르는 못하였다.⁶⁶

후: 이 땅은 앵무새가 많이 있는 섬이라 그 까닭으로 땅을 이름하였다.⁶⁷

『위사』에서는 「곤여만국전도」의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여 앵무지를 기술한 것이다. 남축양의(南軸陽儀)에서 주저사상(洲砥四象)에 이르는 범위에 분포한 여러 국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곤여만국전도」가 빈번히 인용되

65 『緯史』 卷7[『保晚齋叢書』 冊12], 南軸兩儀 第5, 南軸陰儀 5-2, 地球終東, 鸚鵡地, 116b: 坤輿通圖云, 佛郎機商, 嘗遠窮極南之海, 遙望巖陸曠漠, 有鸚鵡鳥無數, 萃止而凜然, 不敢進泊其舟, 但名爲鸚鵡地而還.

66 利瑪竇(Matteo Ricci), “鸚鵡地”, 『坤輿萬國全圖』: 佛郎機商, 曾過駕船此海, 望見鸚鵡地, 而未就舶.

67 利瑪竇(Matteo Ricci), “鸚鵡地”, 『坤輿萬國全圖』: 此地多有鸚鵡之鳥, 故因名地.

었다. 이는 중국의 역대 사서나 지리지에서는 해당 지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들의 참고문헌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자료가 있다. 북축음의(北軸陰儀) - 방국초서(方國初西)에 수록된 대니아(大泥亞)의 황적경항목에서 저자들은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의 『직방외기(職方外紀)』를 아래와 같이 거론하고 있다.

『직방외기』에 이르기를 “북으로 73°부터 남으로 56°에 이른다. 그 북쪽은 일륜(日輪: 해)이 지면(地面)을 횡행(橫行)하여 반년이 일주야(一晝夜)가 되고, 그 가운데는 하지에 낮의 길이가 82각이고, 그 남쪽은 69각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그 가운데를 잘라[중간값을 취해] 66°에 붙인다.⁶⁸

그런데 『직방외기』를 확인하면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 항목은 대니아, 즉 덴마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니아제국(大泥亞諸國)”임을 알 수 있다. 유럽의 서북부에 위치한 네 개의 나라, 즉 대니아, 낙이물야아(諾而勿惹亞: 노르웨이), 설제아(雪際亞: 스웨덴), 악저아(鄂底亞: 에스토니아)를 포괄해서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인 서술은 다음과 같다.

<이 나라들의> 남북경도[위도]는 56°에서 73°에 이르고, 그 남쪽은 하지에 낮의 길이가 69각이고, 그 가운데는 <하지에 낮의> 길이가 82각이며, 그 북쪽은 하지에 일륜이 지면을 횡행하여 반년이 일주야가 된다.⁶⁹

위 인용문과 『위사』 본문을 대조하면, 저자들이 『직방외기』의 기사를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저자들은 『직방외기』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면서 대니아라는 나라를 『위사』의 어디에 배속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것이다.

『위사』의 저자들은 위도를 기준으로 국가와 지역을 배치하였다. 『직방외

68 『緯史』 卷1[『保晚齋叢書』 冊6], 北軸兩儀 第1, 北軸陰儀 1-2, 方國初西, 西洋諸國, 大泥亞, 黃赤經, nob: 職方外紀云, 北自七十三度, 南至五十六度, 其北日輪橫行地面, 半年爲一晝夜, 其中夏至日長八十二刻, 其南六十九刻. 今折其中, 隸六十六度.

69 艾儒略(Giulio Aleni), “大泥亞諸國”, 『職方外紀』 卷2: 南北經度, 自五十六至七十三, 其南夏至日長六十九刻, 其中長八十二刻, 其北夏至日輪橫行地面, 半年爲一晝夜.

기』는 대니아를 포함한 4개국이 북위 56°에서 73°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한다는 사실만 전할 뿐이었다. 대니아의 위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고, 저자들은 이 지역을 포괄하는 위도의 중간값을 취하여 대니아의 위도로 삼고자 하였다. “지금 그 가운데를 잘라[중간값을 취해] 66°에 붙인다”라는 서술이 바로 그런 뜻이다.

이와 같은 『위사』의 기술에 따르면 대니아의 위도는 66°가 아니라 64.5°가 되어야 한다[(56+73)÷2=64.5]. 이는 계산상의 착오이거나 서술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북측음의 지역이 “북극출지 66°에서부터 43°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 위도인 66°만을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66°이건 64.5°이건 대니아의 극위 항목에 기재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극위 항목에서는 “극고와 천정은 심말실위(深末室韋)와 같다”고 밝히고 있다.⁷⁰ 심말실위는 북아시아 지역의 “심말달실위(深末怛室韋)”, 즉 러시아의 제야(Zeya) 강 지류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사』에는 해당 지역이 북측음의(北軸陰儀) - 방국초동(方國初東)에 심말달실위국(深末怛室韋國)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그 위도는 “극고 62°, 천정거극 28°”라 기록하였다.⁷¹ 따라서 대니아의 극고가 심말실위와 같다면 그것은 62°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서술상의 오류를 『위사』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사』의 편집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들이 저자들의 편찬 의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천문학적, 지리학적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의 사유로 들 수 있다. 혹은 여러 참고문헌의 정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대니아 항목을 통해서 『위사』의 편찬 방식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 더 거론할 것은 기존 자료의 활용 방식이다. 서유구는 『직방외기』의 대니아제국에 수록된 내용을 대니아의 개괄적 설명에 포함했을 뿐 아니라, 황적경, 풍속, 토산 등의 항목에 나누어서 수록하였

⁷⁰ 『緯史』 卷1[『保晚齋叢書』 冊6], 北軸兩儀 第1, 北軸陰儀 1-2, 方國初西, 西洋諸國, 大泥亞, 極緯, 10b: 極高天頂, 與深末室韋同.

⁷¹ 『緯史』 卷1[『保晚齋叢書』 冊6], 北軸兩儀 第1, 北軸陰儀 1-2, 方國初東, 深末怛室韋國, 極緯, 108a: 極高六十二度, 天頂去極二十八度.

다.⁷²

이와 같은 편집 과정을 추적해 보면 서유구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안에서 원자료의 변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사』의 전체 구성 방식을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니아”와 유사한 방식의 편집 사례를 막사가미아(莫斯科未亞: 모스크바 대공국), 파라니아(波羅泥亞: 폴란드), 불랑찰(佛郎察: 프랑스)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³

4. 결론

이 글은 『위사』가 선천역과 주비수법을 결합한 세계 지리지로서 어떠한 편찬 원리와 자료 활용 방식을 취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위사』는 서명응이 전반적 구도와 범례를 설계하고, 서유구가 실제 편찬과 교열을 맡아 완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명응은 땅을 논함에 있어 하늘에 근본을 두어야 하며, 하늘을 논함에 있어서는 다시 “도(道)”를 근본으로 삼아야 비로소 그 이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말한 도란 일월성신의 운행을 헤아리고 주야의 장단과 절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로서, 곧 “위도”였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그는 지리지 편찬의 핵심 과제를 위도에 따른 지역 구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기례」, 「입도」, 「제강」, 「거요」라는 네 가지 범례를 마련하였다. 이 범례는 선천역과 주비수법을 세계 각 지역의 밤낮 길이, 계절 변화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 이 시기 어느 지리지에서도 볼 수 없는 “극위”와 “황적경”이라는 항목이 설정되었다.

서유구는 『위사』 본문을 서술하면서 극위, 황적경, 풍속, 산천, 토산의 항

72 『緯史』 卷1[『保晚齋叢書』 冊6], 北軸兩儀 第1, 北軸陰儀 1-2, 方國初西, 西洋諸國, 大泥亞, nob, ma; 艾儒略(Giulio Aleni), “大泥亞諸國”, 『職方外紀』 卷2.

73 『緯史』 卷1[『保晚齋叢書』 卷6], 北軸兩儀 第1, 北軸陰儀 1-2, 方國初西, 西洋帝國, 莫斯科未亞, ma; 『緯史』 卷1[『保晚齋叢書』 卷6], 北軸兩儀 第1, 北軸陰儀 1-2, 方國中西, 西洋帝國, 波羅泥亞, u5b; 『緯史』 卷1[『保晚齋叢書』 卷6], 北軸兩儀 第1, 北軸陰儀 1-2, 方國中西, 西洋帝國, 佛郎察, u6a · b

목을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인 극위는 해당 지역의 위도와 북극으로부터 떨어진 도수를 제시한 항목이며, 황적경은 각 지역의 계절별 일출입 시각, 밤낮의 길이, 하지·동지·춘분·추분 정오의 태양의 위치, 남중고도, 해그림자 길이를 서술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항목은 실제 관측값이 아니라 대체로 각 지역의 위도를 토대로 산출된 것이다.

서명응은 도식을 활용해 특정 위도만 알면 24절기별 태양고도와 그림자를 계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위사』 편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지상 위에 산재한 여러 국가나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그 위도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위사』에 제시된 위도는 다양한 참고문헌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추산·보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서명응과 서유구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 줄리오 알레니의 『직방외기』를 중심으로 『광박물지』, 『삼재도회』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각 지역의 위도와 지리 정보를 구성하였다. 자료에 따라 위도의 범위만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중간값을 취해 위도를 설정하거나, 문헌 기사를 종합·가공하여 『위사』의 각 항목에 분산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착오도 발견된다. 위와 같은 점은 서양의 천문·지리 지식을 선택적 체계와 결부시키려는 편찬자들의 의도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그러나 『위사』의 저자들은 이러한 작업이 임시적 편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장차 정본(正本)을 마련하기 위한 규범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했다.⁷⁴ 나아가 극위와 황적경이라는 독자적 항목은 천문역산학의 방법을 동원한 지리 서술을 가능하게 하여, 『위사』가 지리지로서 지향한 “하늘의 도를 본원으로 삼는 지리학”의 윤곽을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늘의 도에 근본한 세계 지리지 『위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는지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서명응은 선천과 주비가 『서경(書經)』 「우공(禹貢)」의 핵심을 이루며, 「우공」은 모든 지리서의 모범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우공」에 대해 역대 유학자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었고, 서명응은 『위사』를 저술하여 「우공」을

74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起例 第1 八則, 6b: 其他諸國之道里, 亦皆權宜分排, 未必得其真數。然中國靈臺所測之極度, 經百有餘年, 輒必修改。凡事先正其規模, 則後人因此規模, 厘[釐]改潤色, 以成正本也。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길 바랐다.⁷⁵ 이 글은 『위사』의 체제와 자료 활용을 부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위사』의 전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우공」과의 구체적 관련성을 파악하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투고: 2025년 11월 22일, 심사 완료: 2025년 12월 17일, 게재 확정: 2025년 12월 30일)

⁷⁵ 『緯史』 卷首[『保晚齋叢書』 冊6], 起例 第1 八則, 5b: 一. 先天周髀, 卽禹貢一篇之本原也. 禹貢一篇, 又萬世地理書之本原也. …… 其禹貢地理, 往往有先儒然疑未定之論者, 各爲條辨, 詳載於該地方之下, 以備讀禹貢者叅[參]考, 故是書一名禹貢翼.

The Compilation of World Geography *Wisa* (緯史) and the Utilization of its Sources in the Late 18th Century

PYUN Sori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principles of compilation and source utilization in *Wisa*, a late eighteenth-century world geography treatise that sought to integrate the Xiantian (先天, Prior Heaven) cosmological framework with mathematical astronomy derived from the Zhoubi (周髀). Conceived by Seo Myeong-eung (徐命膺) and completed by Seo Yu-gu (徐有楨), *Wisa* grounded geographical knowledge in celestial order, expressed through latitude. Its core lies in a latitudinal system of regional classification, implemented through analytical categories such as Geug-wi (極緯, Polar Altitudes, quantifying latitude) and Hwangjeok-gyeong (黃赤經, Solar Altitudes, calculating seasonal day/night length). Drawing on Western cartographic and geographical sources, including Matteo Ricci's Kunyu Wanguo Quantu (坤輿萬國全圖), as well as Chinese classical texts, the compilers collated and recalibrated geographical data. This synthesis of Western astronomical knowledge with the indigenous Xiantian system reveals both the intellectual ambitions and methodological constraints of the project, ultimately reconfiguring geographical description within an astronomical and calendrical order aimed at interpreting the Yugong (禹貢).

Keywords: *Wisa* (緯史), Seo Myeong-eung (徐命膺), Seo Yu-gu (徐有楨), latitude, Geug-wi (極緯), Hwangjeok-gyeong (黃赤經)